

2022년 07월 1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65편 1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초장은 양 때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291(통413)장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3장 11~26절(구약p.763)

13. 그럴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14. 자기를 위하여 폐해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5.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6.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17.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18.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19.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20.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1.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22.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23. 하나님에게 돌려 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24.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 ◎ 말씀선포 / 욥이 겪는 심리적 혼란

1960년대에 시카고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켈러 로스는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환자들이 겪게 되는 변화에 대해 말하면서 먼저 환자들은 의사의 오진을 의심하며 자신이 시한부 인생임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생겼는가에 대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협상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병을 고쳐 주시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겠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우울증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

막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마주하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도 불안과 고통 속에서 느낀 혼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욥이 겪은 심리적 혼란을 이해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 1. 생명보다 죽음을 동경합니다.

- 본문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갑작스럽게 당한 시련들 앞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사라졌고 자녀들은 죽었으며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것도 연속해서 경험한 욥에게는 삶이 죽음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그는 심히 슬프고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삶은 고통이며 유일한 소망은 죽음이라고 한탄합니다. 살아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비애와 고통을 죽은 자들은 느끼지 않으리라고 막연하게 동경한 것입니다. 그는 고통 받는 이유가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죽음이란 결코 평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임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는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판단하고 가르치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32~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고 말씀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애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실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 슬픔을 토로하고 마음의 혼란을 털어놓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또한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의 혼돈과 두려움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깊이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지식으로 조금하게 그들을 도우려 하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욥은,

#### 2.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 분명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길을 잃게 하시고 사방으로 나갈 길을 막으셨다고 한탄합니다.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도 가혹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낙심한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욥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언제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문제든 어려움 없이 헤쳐 나갔으며 그 결과 엄청난 풍요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막고 계신 듯한 답답함을 지금 욥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성급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짧아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며,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고통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시련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혼돈과 불안한 생각들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따뜻한 침묵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한 자들을 물러가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의 처분을 요구했던 유대인들과 그 여인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침묵하셨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간 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련 가운데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이웃을 위로하고,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통은 육체적으로 침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영적 침체 또한 불러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나약해진 사람들을 일반적이고 자신의 믿음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함으로써 참된 위로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310(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 폐 회 / 주기도문